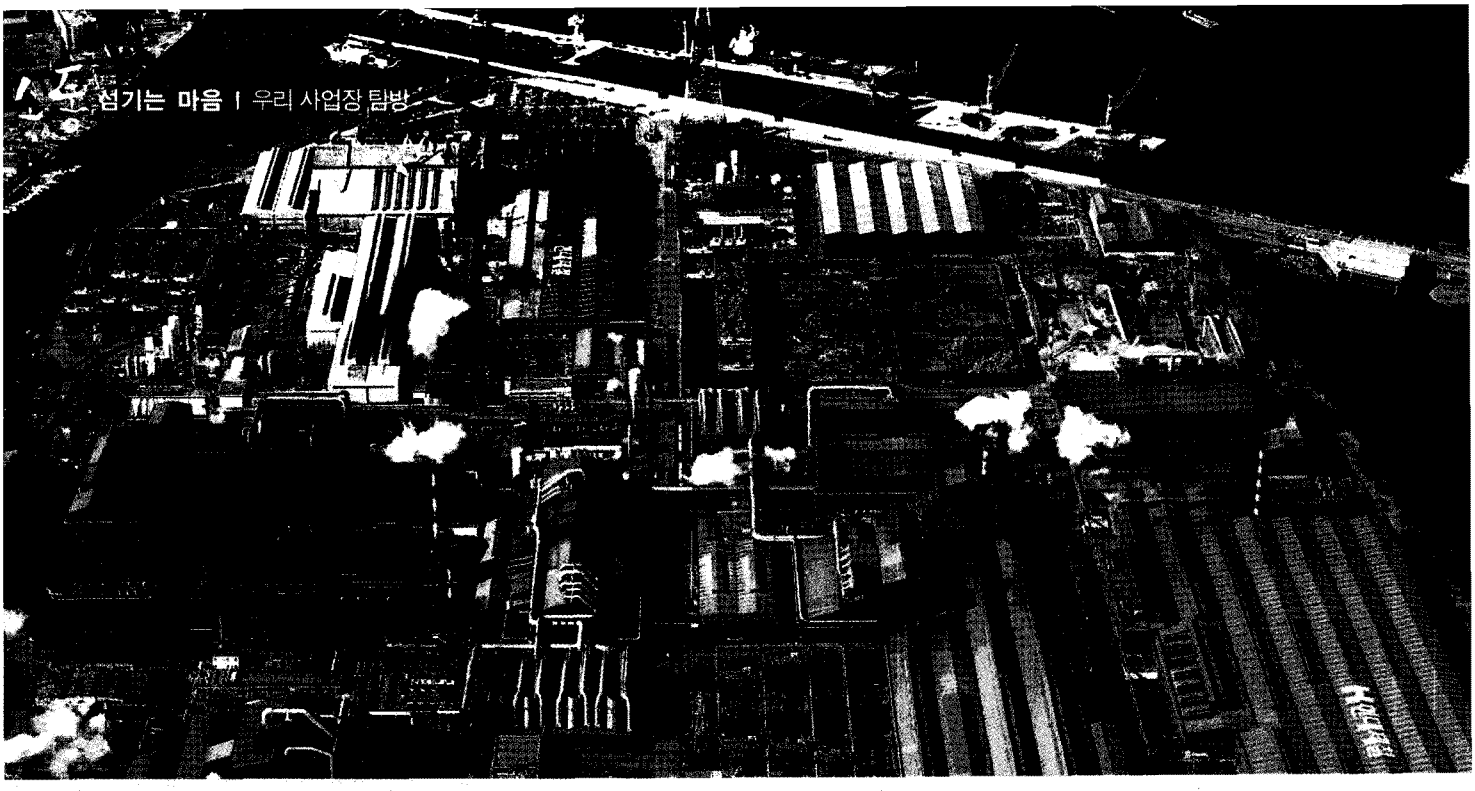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철강회사 현대제철

친환경, 지역친화기업을 통해 인천의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장

우리나라 최초의 철강회사는? 바로 현대제철이다. 1953년 대한중공업공사로 출발한 현대제철은 1978년 현대그룹의 일원으로 편입되었고, 2000년에는 강원산업과 삼미특수강을 인수 · 합병, 2004년에는 한보철강을 인수하면서 인천공장과 포항공장, 당진공장 체제라는 오늘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강사를 넘어 세계 최고의 철강사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현대제철의 시발점이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장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기업 이미지를 드높이고 있다. 글 최용균 사진 및 자료제공 현대제철 인천공장

친환경 녹색성장의 실천현장, 인천공장

인천공장은 총 면적 92만㎡에 제강 452만 톤과 압연 44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움튼 곳이다. 인천공장의 가치는 우리나라 최장수 철강기업이라는 명예보다 설립 이후 줄곧 철스크랩(고철)을 재활용해 철근, H형강 등의 건설자재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철은 다른 건축자재와는 달리 수명을 다하고 나면 철스크랩으로 회수되는데 한 번 생산된 철 1톤은 '생산-소비-회수-재생산' 의 과정을 40여 차례 이상 반복하면 누적 사용량이 10톤을 넘는다. 인천공장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수거하여 고철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친환경을 57년 동안 실천해 온 것이다. 인천공장은 원료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실천뿐만 아니라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공업용수 100%를 폐수를 재처리해 사용하고, 제강과정의 부산물인 슬래그를 도로포장용 골재로 활용하는 등 공정 곳곳에서 다양한 친환경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는 2002년 75억 원을 투자해 연간 500만 톤의 공업용수 정화설비를 활용,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재처리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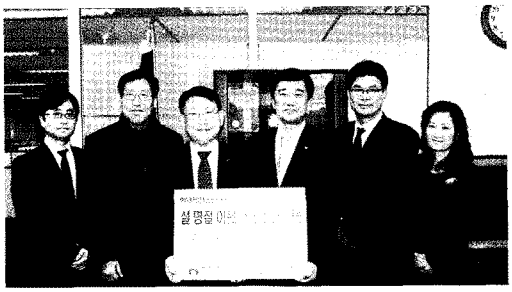
지역민과의 상생으로 성장하는 지역친화기업, 인천공장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인천공장은 직접고용 3,400여 명에 1천만 톤에 이르는 철강물류의 운송과 하역, 기자재 납품 등 관련업체를 포함하면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여기에 동구 관내에 위치한 21개 협력업체를 비롯한 120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인천지역 산업발전의 큰 동력이 되어왔다. 이처럼 인천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천공장은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친화기업' 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 중 '재래시장 살리기' 는 대표적인 예이다. 인천공장은 경제불황과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2009년 3월 현대시장(동구 재래시장)과 '식재료 납품협약' 을 체결하고, 연간 3억 원 규모의 식재료를 현대시장으로부터 납품받고 있으며, 임직원의 재래시장 방문 및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재래시장 살리기 외에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활동도 눈에 띄는 활동이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천공장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7,021개 기관이 지원협약에 참여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복지 향상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공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장학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1사 1하천 가꾸기 정화활동,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 경로사업, 끝전 모아 사랑의 쌀 전달,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등 지역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인천공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지속가능경영 대상 민간기업 최우수상' ▲환경재단이 주최한 '로하스 경영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터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에 대한 투자와 탄소 줄이기 캠페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 등을 펼치며 녹색성장을 실천해오던 현대제철은 민간기업 최초로 지난해 12월 산림청과 '숲사랑 실천 협약식' 을 체결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20개 협력업체들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식' 을 갖고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원료에서부터 제품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관리하고 저감하는 사업을 시작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인천공장은 기존의 친환경 경영 및 지역밀착 경영을 통해 인천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경
인천공장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설 명절 이웃사랑 선물나눔 행사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다.
지역친화기업인 인천공장은 안근의 산과 하천을 정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진은 굴포천을 정화하는 모습

Mini-interview

강기철 팀장
현대제철 인천공장 환경안전팀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협약이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교과서가 되는 인천공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무서운 속도로 고령사회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의 접근은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예방의학의 일환으로 기업체의 산업보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근로자 교육과 복지, 건강증진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매우 절실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근로자는 건강한 기업체를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다' 는 마인드로 근로자의 건강에도 유념하는 기업이 되어야할 때인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이미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건강진단 수준으로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해서도 인근 병원 및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 물리 및 운동치료사가 상주해 검진 후 이상 소견자에 대하여 개인별 면담 및 치료,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와는 2010년 가족검진에 대한 협약을 맺어 진료 협력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높은 의료수준, 인프라 구축이 완비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현대제철이 새로운 산업보건의 교과서가 되어 철강업의 선두주자가 되리라 기대합니다.